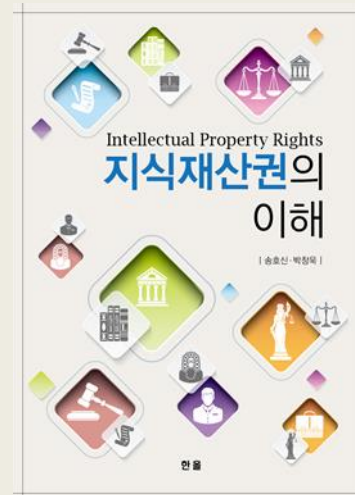


제5주차 2교시

chapter 4

지식재산의 국가간 보호



기본연구
정책연구

지식재산동향뉴스
특별이슈

간행물
기타자료

IP 학술정보
IP 동향정보
IP 인력정보
분석보고서

원고모집안내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명단
우수논문상

행사명

정보공개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경영공시
사업실명제
정보화사업 안내

공지사항
RSS안내
해외 관련사이트

원장인사말
비전 및 목표
KIIP CI
주요연혁
조직 및 연락처
법령 및 정관
윤리경영
민원안내
KIIP
클린신고센터
오시는길

·유럽
·한국
·기타국가
·국제기구

특별이슈

>

- 2017년 1월 31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PI)은 스위스 미생물 자원은행(Culture Collection of Switzerland, CCOS)이 부다페스트 조약¹⁾에 따른 미생물 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IDA)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발표함
- (배경) 부다페스트 조약은 당사국의 특허절차상 요구되는 미생물 기탁²⁾의 효과가 국내 승인기관 이외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7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임
- 2016년 12월 1일, IPI는 CCOS가 IDA로서 부다페스트 조약 제6조 제2항³⁾에 명시된 IDA의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보증하는 선언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총 46개 기관이 IDA 지위를 획득함
- (주요내용) 스위스 베덴스빌(Waedenswil)에 위치한 CCOS는 현재 총 2,500종 이상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IDA 지위 획득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COS는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며, 미생물 균주, 동물-인간 세포 배양 및 기타 생물학적 시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은행으로 서 역할하게 됨
- 기밀 유지가 필요한 생물학적 물질의 경우,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CCOS에 보관되며 CCOS 카탈로그에서도 검색할 수 없음
- CCOS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으며, 미생물 기탁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스위스 미생물 자원은행(CCOS) 미생물 기탁 수수료 |

수수료 항목

수수료 (단위:프랑)

지식재산동향

각 나라별 지식재산 동향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동향뉴스



· 미국
· 중국
· 일본
· 유럽
· 한국
· 기타국가
· 국제기구

특별이슈



지식재산동향뉴스

HOME > 지식재산동향 > 지식재산동향뉴스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스위스 최초의 미생물 기탁기관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ge.ch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연방 지식재산청
통권	2017-6 권호	발행일	2017-02-09

- 2017년 1월 31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PI)은 스위스 미생물 자원은행(Culture Collection of Switzerland, CCOS)이 부다페스트 조약¹⁾에 따른 미생물 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IDA)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발표함
 - (배경) 부다페스트 조약은 당사국의 특허절차상 요구되는 미생물 기탁²⁾의 효과가 국내 승인기관 이외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7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임
 - 2016년 12월 1일, IPI는 CCOS가 IDA로서 부다페스트 조약 제6조 제2항³⁾에 명시된 IDA의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보증하는 선언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총 46개 기관이 IDA 지위를 획득함
 - (주요내용) 스위스 베덴스빌(Waedenswil)에 위치한 CCOS는 현재 총 2,500종 이상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IDA 지위 획득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COS는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며, 미생물 균주, 동물·인간 세포 배양 및 기타 생물학적 시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은행으로서 역할하게 됨
 - 기밀 유지가 필요한 생물학적 물질의 경우,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CCOS에 보관되며 CCOS 카탈로그에서도 검색할 수 없음
 - CCOS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으며, 미생물 기탁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스위스 미생물 자원은행(CCOS) 미생물 기탁 수수료 |

수수료 항목	수수료 (단위:프랑)

II.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약

2. 저작권 국제협약

(1)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규제에 관한 중요한 조약이다.

“**문학적 ·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1886년)**”

- 베른 협약은 저작권발생시 **무방식주의**를 채택

보호되는 저작물 : 표현형식, 방식에 관계없이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

모든 가맹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요구**

-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네스코의 노력에 의하여

1952년에 “세계저작권조약(UCC)”을 성립시키는 데에도 기여.



II.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약

2. 저작권 국제협약

(1) 베른협약

- 조약의 기본원칙

① 내국민대우의 원칙(=내외국민평등의 원칙)

- 자국민에게 인정되고 있는 자국법상 권리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② 최소한 보호의 원칙

-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최소한 이 협약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각국법에 입법화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고, 저작권 존속기간을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으로 하고 있다.



II.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약

2. 저작권 국제협약



(1) 베른협약

③ 무방식주의

- 권리인정을 위한 절차나 권리행사에 관하여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 자동보호원칙(automatic protection)이라고도 한다.
즉 저작권은 절차나 형식 없이 창작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호

④ 속지주의(=법정지법주의)

-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보호방법은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

⑤ 소급보호의 원칙

- 베른협약 체결의 효력발생 당시에 본국에서
저작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상태가 아닌 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고,
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으로 한다는 원칙.

II.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약

2. 저작권 국제협약

(1)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 가입을 시작으로 같은 해 음반협약, 1995년 TRIPs 협정, 1996년 베른협약, 2004년 WCT에 차례로 가입하여 우리 저작권 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왔다. **2008년**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인접권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로마협약과 WPPT에 가입하였고, 2011년에는 위성으로 송출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불법적인 배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뤼셀 협약에 가입하였다. **2012년**에는 WIPO 외교회의에 참석하여 베이징 조약 성안에 기여하는 등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저작권 제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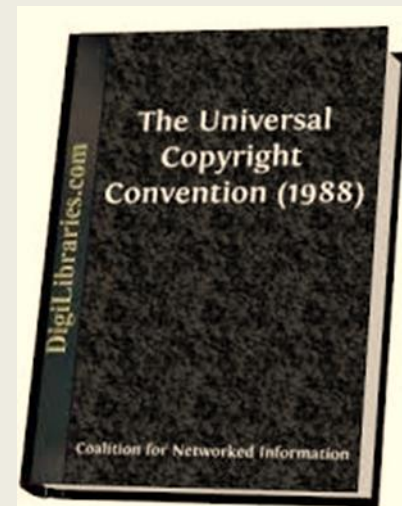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 관련 국제협약 설명.

II.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약

2. 저작권 국제협약

(2) 세계저작권 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베른협약과 대동소이하다.
재산권도 복제권, 연주권, 방송권 등 재산적 이익보호를 확보하는
기본적 권리는 보호하지만,
저작인격권 보호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권리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 동안 및 **사후 25년 이상이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I.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약

2. 저작권 국제협약

(3) WIPO 신조약

- WTO의 부속협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 이후 **디지털 네트워크 및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질서의 수립과 계약체결국간의 **저작권법의 제도정비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수준의 저작권보호**가 그 목적.

- 그 결과

WIPO 저작권 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WCT)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WPTT)



Ⅲ. 국제기구

1.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인 동시에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이다.
- 1967년 스톡홀름에서 파리조약과 베른조약 등을 개정하면서 세계적 지식재산권 보호 촉진을 위해 1970년에 설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역할

- 국제협정체결 등 세계적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 개선하고
- 파리동맹, 베른동맹 및 특별동맹들에 관한 업무 수행
-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적 지원 요청에 대한 협력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정보 수집, 보호
-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성과를 공표한다.
-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업무로써 등록 및 공표 업무 수행

우리나라는 1979년 3월 1일에 회원국이 되었다.

Ⅲ. 국제기구

2.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1946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에 의하여 설립
- 본부는 **파리**에 두고 있다.
- 교육, 과학, 문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국제기구

2. UNESCO

- 구체적인 목적

: 세계유산인 각종 도서·예술작품·역사과학의 기념물의 보호를 확보
관련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조약체결을 권고하는 등
지식을 유지·증진·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기구는 저작권프로그램에서 "저작권보호의 촉진과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용이한 접근"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세계저작권협약 등의 보호원칙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전문인력의 양성, 새로운 보호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 보호·협력에 이바지 하고 있다.



Ⅲ. 국제기구

2. UNESCO

-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영상

Ⅲ. 국제기구

2. UNESCO



 14

한국의 세계유산 | 2019년 등재기준

 21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 2020년 등재기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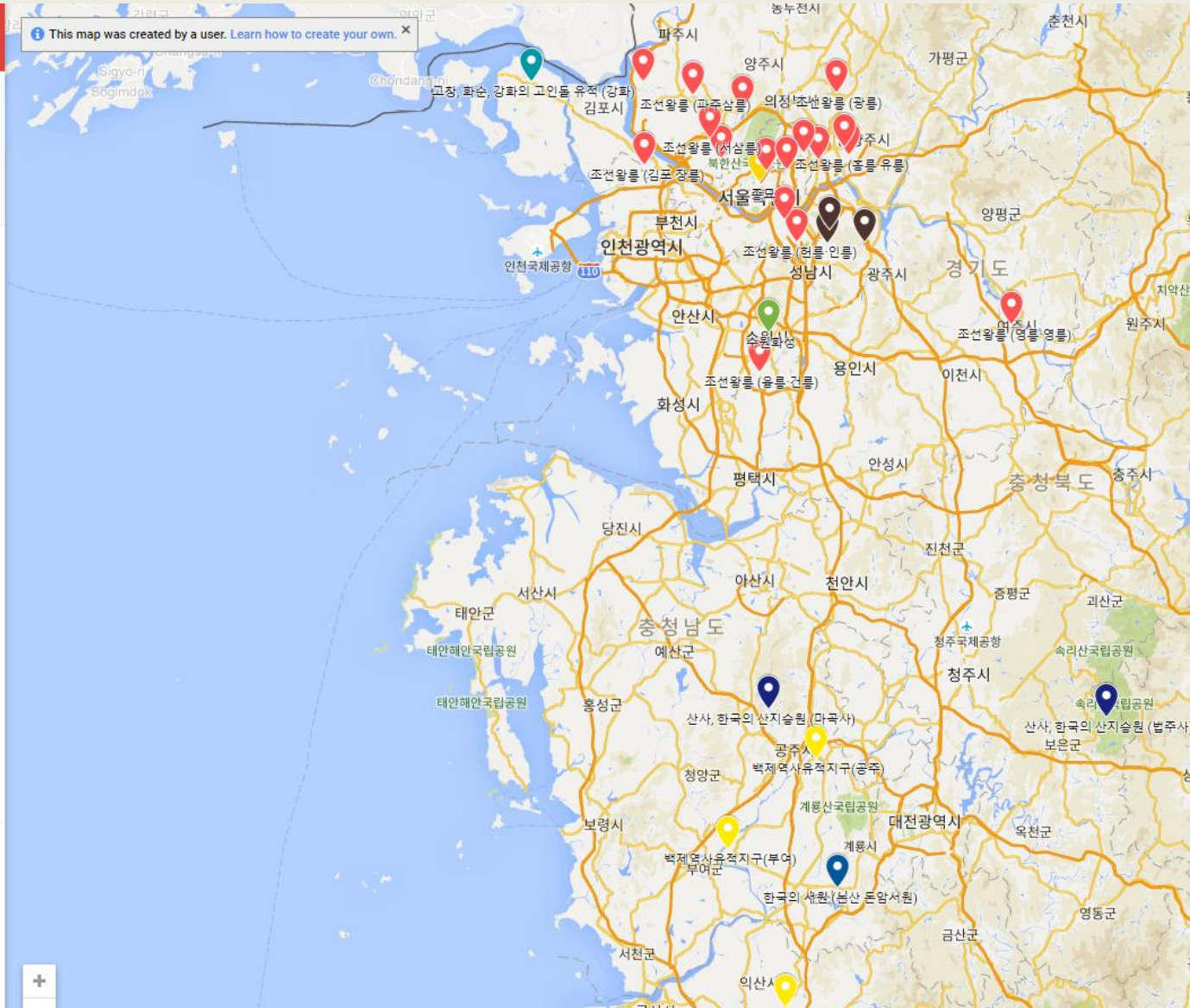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 2017년 등재기준

한국의 유산지도



III. 국제기구

2. UNESCO



Ⅲ. 국제기구

2. UNESCO



무형문화유산

- 농악(2014)
-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2013)
-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2018)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 처용무(2009)
- 제주해녀문화(2016)
-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2011)
- 남사당 놀이(2009)
- 영산재(2009)
- 가곡,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
- 대목장,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2010)
-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2010)
- 줄타기 (2011)
-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2012)
- 줄다리기(2015)
- 한산 모시짜기(2011)
- 판소리(중고제)(2005)
- 판소리(중고제)(2005)
- 판소리(동편제)(2005)
- 판소리(서편제)(2005)
- 강릉단오제(2005)
- 강강술래(2009)
-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 연등회(2020)



기록유산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17세기~19세기 ...
-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민주화운동 ...
- 동의보감(2009)
-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2001)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2017)
-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 승정원 일기(2001)
- 조선왕조 의궤(2007)
- 조선왕조실록(1997)
-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
- 『난중일기(亂中日記)』: 이순신 장군의 진중...
-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 한국의 유교책판(2015)
- 훈민정음 해례본(1997)

Ⅲ. 국제기구

2. UNESCO

승정원 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국사편찬위원회 | 승정원일기

자료열람 | 부가열람 | 소개 | 승정원마당 | 사이트맵 | 도움말 English |  세계기록유산

承政院日記 승정원일기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인기검색어 草記 玉堂 聖明 官方 狀聞 이이명 備局堂 賤臣 김양택 成命

인조 - 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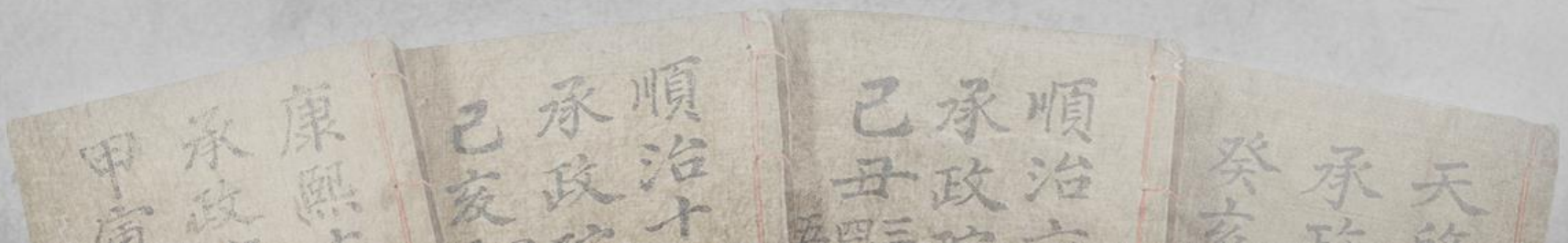


- 16대 인조(1623년~)
- 17대 효종(1649년~)
- 18대 현종(1659년~)
- 19대 숙종(1674년~)
- 20대 경종(1720년~)
- 21대 영조(1724년~)
- 22대 정조(1776년~)
- 23대 순조(1800년~)
- 24대 헌종(1834년~)
- 25대 철종(1849년~)
- 26대 고종(1863년~)
- 27대 순종(1907년~)

기타



- 은대조례
- 은대편고



Ⅲ. 국제기구

2. UNESCO

승정원 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승정원일기

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 > 자료열람 > 인조 > 인조 1년 (1623년 天順(明/廣宗) 3년 > 인조 1년 3월 > 인조 1년 3월 13일

◀ ▶ ⏮ ⏭ ⏯ ⏸ 🔍 📄 🔄 📋 🗨️ ⓘ 오류신고

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1책) 인조 1년 3월 13일 계묘 1/1 기사 1623년 天順(明/廣宗) 3년

慶運宮에 머뎡. 慈殿이 國寶를 전하고 光海君을 藥房에 두고 世子를 폐함.

규장각 원본 ▼ 국역

○ 上在慶運宮。上命大將李貴, 都承旨李德洞, 同副承旨閔聖微等, 備儀仗往請奉迎。李貴等, 詣慶運宮陳啓事狀, 屢請奉往, 大妃不許。上乃親詣慶運宮, 有司進輦設儀衛, 上命徹去, 請乘輦亦不從, 乘馬而行, 昇光海以隨。上至慶運宮下馬, 步入西廳門外, 再拜痛哭, 侍衛將士及侍臣, 皆痛哭。上仍俯伏待罪, 慈殿下教曰, 綾陽君, 宗子也, 入承大統, 宜矣。克成莫大之功, 有何待罪之事? 上對曰, 搶攘之中, 事多未遑, 今始來詣, 不勝惶恐。慈殿命納傳國寶及啓字。李貴奏曰, 慈殿當出御正殿, 招大臣傳寶, 何必徑入國寶, 以致人疑乎? 慈殿屢促之, 上命左議政朴弘壽, 奉入國寶, 而久無成命。上伏地良久, 至于夜深。上謂群臣曰, 予欲退家待罪, 群臣力諫止之。俄而慈殿, 命引見嗣君, 上進入內庭, 諸將皆從。慈殿, 設先王虛座, 上再拜痛哭, 侍臣皆哭。慈殿御寢殿垂簾, 置御寶於床, 引上入。上俯伏而哭, 慈殿曰, 勿哭。宗社大慶, 何用哭爲? 上避席而拜曰, 大事未定, 日暮始來, 臣罪萬死。慈殿曰, 勿辭。有何罪? 予以薄命, 不幸遭人倫之變, 逆魁逞憾先王, 以我爲讎, 屠戮我父母, 魚肉我宗族, 剝殺我孺子, 幽囚我別宮, 寡身久處深宮, 人間消息, 邈不聞知, 不意今日, 乃見是事。又謂群臣曰, 逆魁於先王, 實是仇讎, 朝廷之上, 奸臣布列, 加予以大惡之名, 而拘囚十餘年, 疇昔之夢, 先王, 語予以此事, 賴卿等復明人倫, 得見今日, 卿等之功, 何可勝言? 群臣請速傳寶, 慈殿曰, 未亡人, 得至今日, 實是上帝之靈貺, 嗣君, 可拜謝上帝。閔聖微曰, 爲此舉措, 殊極未安, 不敢承命。傳寶然後, 嗣君當出外討捕凶黨, 以定人心。群臣皆曰, 嗣君卽位之後, 當告宗廟, 傳寶甚急。慈殿曰, 傳寶大事, 不可草草行禮, 明日當於西廳, 備禮行之。且無天朝之命, 何以正位? 宜權署國事。都承旨李德洞請對啓曰, 國家危亂, 幾至於亡, 嗣君爲宗社大計, 躬擐甲冑, 舉此大事。人心已歸, 天命已定, 而傳寶之事, 夜深不決, 何也? 若不速傳國寶, 以正位號, 何以鎮定? 請亟傳國寶, 以答臣民之望。慈殿曰, 受寶有節次, 何以暮夜, 急迫傳授乎? 卿等之言如此, 須與大臣相議, 當以何寶傳之乎? 大臣曰, 以昭信寶·受命寶, 傳之宜當, 諭書寶, 亦可傳授。上曰, 臣無才德, 不敢當。慈殿曰, 王室至親, 臣民愛戴, 非德而何? 嗣君自此, 可爲聖主, 實宗社之洪福也。乃命承傳色金天霖等, 奉御寶跪傳於上, 上拜受。侍臣啓曰, 既已傳寶, 宜亟出御正殿, 以正大位。慈殿曰, 初欲備禮, 從容傳授, 卿等之言, 不可違, 故如是行之矣。仍謂上曰, 逆魁之罪, 知之乎? 惟我德薄, 不能盡母子之道, 使倫紀敦滅, 國家幾亡, 賴嗣君孝, 上安宗社, 下雪讎怨, 感激何極? 又謂諸臣曰, 逆魁父子, 今置何處乎? 對曰, 皆在闕下矣。慈殿曰, 不共戴天之讎, 忍之已久, 願親斫渠父子之頭, 以祭亡靈。幽囚十餘年, 至今不死者, 蓋待今日耳, 願得甘心焉。諸臣啓曰, 自古廢黜之君, 臣子不敢以刑戮擬議, 無道之主, 莫如桀·紂, 而湯·武放之。今此下教, 臣等所不忍聞也。德洞曰, 慈聖之於廢君, 天倫已定, 子雖不孝, 母不可以不慈也。此下教, 非徒不忍聞, 亦不敢奉承。慈殿曰, 吾與嗣君, 同御正殿, 則當雪吾讎, 今嗣君卽位, 能體我心, 爲吾復讐, 則可謂孝矣。上曰, 百官在, 臣何敢擅也? 慈殿曰, 嗣君年已壯長, 豈受百官指揮? 德洞曰, 嗣君入內, 夜將朝矣, 尚未卽位, 將士·軍民, 皆有悶鬱之心, 請速出外。慈殿曰, 父母之讎, 不共天, 兄弟之讎, 不同國。逆魁, 自絕母子之道, 於我有必報之讎, 無可赦之道矣。德洞曰, 昔中廟反正, 僂待廢王, 以終天年, 此可法也。慈殿曰, 卿言誠是。德洞曰, 姦逆之徒, 散處外間, 不無意外之變, 請速卽位頒教, 及時討捕, 鎮撫群情。慈殿曰, 別堂, 乃先王視事之所, 已令宮人灑掃矣。上起拜出, 卽位于別堂, 仍視事達曙。侍臣及將士, 帶劍宿衛。置光海于藥房, 廢世子于都摠府, 以兵守之, 令司饔院供之。罷營建·儼禮·火器等十二都監, 開義禁府·典獄署, 悉放罪人。時, 爾瞻之徒, 多逃竄, 遣軍人搜捕。又多有冀免其罪, 爭先投謁者, 皆縛而拘之。下諭于都元帥韓浚謙, 誅平安監司朴燁, 義州府尹鄭遵于境上。又命誅諸道調度使金純·池應鯤·金忠輔·王明恢·權忠男·李文賓等, 濟州牧使梁漢, 亦命拿來誅之。已上因傳教考出實錄

승정원 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 ☐ 14일(갑진)
- ☐ 15일(을사)
- ☐ 16일(병오)
- ☐ 17일(정미)
- ☐ 18일(무신)
- ☐ 19일(기유)
- ☐ 20일(경술)
- ☐ 21일(신해)
- ☐ 22일(임자)
- ☐ 23일(계축)
- ☐ 24일(갑인)
- ☐ 25일(을묘)
- ☐ 26일(병진)
- ☐ 27일(정사)
- ☐ 28일(무오)
- ☐ 29일(기미)
- ☐ 일기청 관원

4월
5월
6월

[홈](#)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년 계해](#) > [3월 13일](#) > [최종정보](#)

➤ 인조 1년 계해(1623) 3월 13일(계묘)

01-03-13[02] 경운궁에서 대비가 어보를 전할 때 대장 이귀 등이 입시하였다

[DCI]ITKC_ST_P0_A01_03A_13A_00030_2009_001_XML [DCI복사](#) [URL복사](#)

상이 대장 이귀(李貴), 도승지 이덕형, 등부승지 민성징 등에게 명하여 의장(義仗)을 갖추고 가서 대비를 모셔 오게 하였다. 이귀 등이 경운궁에 나아가 정황을 아뢰고 누차 모셔 가기를 청하였으나 대비가 허락하지 않았다. 상이 이에 친히 경운궁으로 나아갔다. 유사(有司)가 연(宴)을 대령하고 의위(儀衛)를 마련하였으나, 상이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교자(輿子)를 타기를 청하였으나 역시 따르지 않고 말을 타고 가면서 광해를 떠때어 뒤따르게 하였다.

상이 경운궁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걸어서 서청문(西廳門) 밖에 들어가 재배하고 통곡하자 시위하던 장사(將士) 및 시신(侍臣)들이 모두 통곡하였다. 상이 곧 엎드려 대죄(待罪)하였다. 자전(慈殿)이 하교하기를,

“능양군(綾陽君)은 종자(宗子)이니, 입승대통(入承大統)하는 것이 당연하오. 더없이 큰 공을 이루었는데 무슨 대죄할 일이 있겠소.”

하니, 상이 대답하기를,

“혼란 중에 일이 많고 경황이 없는 탓에 지금에서야 오게 되었습니다.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자전이 전국보(傳國寶)와 계자인(啓字印)을 바치라고 명하니, 이귀가 아뢰기를,

“자전께서는 마땅히 정전(正殿)에 낚시어 대신(大臣)을 부르고 국보를 전하셔야지, 지레 국보를 들어 사람들의 의심을 살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자전이 누차 재촉하므로 상이 좌의정 박홍구(朴弘耆)에게 명하여 국보를 봉입(奉入)하게 하였으나, 오랫동안 명이 없었다. 상이 한동안 땅에 엎드려 있다가 야심한 때에 이르러 군신(羣臣)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집으로 물러나 대죄하고자 한다.”

하나, 군신들이 힘써 간(諫)하여 말했다. 얼마 안 있어 자전께서 사군(嗣君)을 인견(引見)하겠다고 명하였다. 이에 상이 내정(內庭)으로 들어갔고 여러 장수들도 모두 따라 들어갔다. 자전이 선왕의 허좌(虛座)를 설치해 놓았는데, 상이 재배하고 통곡하니, 시신들도 모두 통곡하였다. 자전이 침전에 남시어 발을 드리우고 어보(御寶)를 상(床)에 놓은 다음 상을 인도해 들어갔다. 상이 앉으려 통곡하자, 자전이 이르기를,

“통곡하지 마시오. 종묘사직의 큰 경사인데 무엇 때문에 통곡하십니까.”

하였다. 상이 자리를 피해 절하고 아뢰기를,

“대사(大事)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 날이 저물어서야 비로소 왔으니, 신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하니, 자전이 이끄기를,

Ⅲ. 국제기구

3. 그 외의 국제기구

- 앞의 기구 이외에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구들이 많다.
- **국가 간의 기구**
 -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 국제상품위조방지협회
 - 국제지식재산권연맹
- **개별국가의 단체**
 - 미국변호사협회 · 일본변리사협회 등



Ⅲ. 국제기구

3. 그 외의 국제기구

(1)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 1897년 설립.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발명 · 상표 · 디자인 · 상호 · 부정경쟁방지 등의 국제적 보호에** 필요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산권보호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등의 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선 ·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Ⅲ. 국제기구

3. 그 외의 국제기구

(2) 국제 상품위조방지 협회

- 1978년 설립.
- 특허 · 상표 · 저작권 등에 관련된 **미국의 대기업들이 주축이 된 기구**

(3) 국제 지식재산권 연맹(IIPA)

- 1984년 설립.
- 미국의 저작권 관련 산업들이 결성한 조직
- 미국출판협회 등 7개 **무역관련 단체로 회원이 구성.**
-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보호 미흡을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국가의 지정압력을 가해온 단체**이기도 하다.



Ⅲ. 국제기구

3. 그 외의 국제기구

(4) 개별적인 조직

- 미국변호사협회(ABA),
- 미국지식재산권협회(AIPLA),
- 아시아변호사협회(APAA),
- 태평양산업재산권협회(PIPA),
- 발명가협회세계연맹(IFIA) 등



-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